

《 \_\_\_\_\_ 영어 세특 수행평가 : 논설문 작성》

하이에듀

<p>주제</p>	<p>Is learning English still necessary in the AI era? (주장과 근거를 표시하세요.)</p> <p style="text-align: right;">✓전공적합성 ✓ 학업역량</p> <p>'인공지능 시대에 영어 능력은 꼭 필요할까?' 주제로 논설문을 작성하세요.</p>
<p>가이드</p>	<p>세현 학생의 희망 진로 분야인 간호학적 측면에서 해당 주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설명을 한 후, 본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영어능력을 통해 간호학적 측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근거들을 나열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위의 글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p> <p>서론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대한 설명과 주제에 대한 주장 소개          본론 -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 능력이 필요한 이유          결론 - 마무리 및 정리</p>
<p>가이드</p>	<p><input type="checkbox"/> 서론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대한 설명과 주제에 대한 주장 소개</p> <p>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rapidly advanced. This transformation has made our lives more convenient and has led to innovative achievements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municate using real-time translation even if you do not know the language of another country, or install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a device to determine a person's health status. Nowadays, as many things can be done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aving to be done by humans, some are saying that there is no need to develop English skills. However, even though we have entered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 think English skills are still necessary.</p> <p>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 번역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을 기</p>

기에 탑재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요즘, 영어 능력을 기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영어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본론 :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 능력이 필요한 이유

First of all,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crucial to enhance English proficiency for global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s globalization accelerates, English has become essential for the exchange of opinions between industries.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can translate between English and native language in real time, it may convey the meaning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customs or culture of each country, which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Therefore, in order to collaborate and communicate with other countries, we must not only r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lso continuously develop our English skills.

우선, 글로벌 협업과 소통을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영어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각 산업 간 의견 교류를 위해 영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어와 모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줄 수 있긴 하지만, 각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의미를 전달하여 서로가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어 능력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Next, proficiency in English is necessary to foster international research and knowledge exchange in specialized fields.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capability to learn autonomously, its limitations arise when it comes to updating newly discovered technologies or theories in specific fields. Without understan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glish, depending sol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might result in a delay in acquiring new knowledge in each field unti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pdated. In the field of nursing, knowledge exchange through international research and experience is increasing, and I believe that English proficiency will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ies.

다음으로,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

만, 전문적인 분야에서만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 발견한 기술이나 이론들을 일일이 업데이트해주어야 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를 알지 못하고 인공지능에만 의존한다면 인공지능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각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알지 못하여 연구와 산업 발전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한 지식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영어 능력을 통해 최신 의료 기술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stly, English proficiency is necessary to respond to emergencie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not be applicable.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technology applied to devic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not be usable in urgent situations due to external factors. However, in fields that deal with life, such as nursing and medicine, it is difficult to entrust life to such uncertainty, and The Nightingale Pledge emphasizes the obligation to provide equal car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refore, consistently improving English proficiency, the internationally used language, is crucial to handle and treat patients of various nationalities anytime, anywhere.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고 기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의료와 같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생명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이팅게일 선서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간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대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결론 : 마무리 및 정리

In summary, firstly, enhancing English proficiency is essential to prevent mistranslation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nsure successful global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econdly, proficiency in English is crucial to foster international research and knowledge exchange in various specialized fields. Lastly, English skills are necessary to deal with emergency situation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used, and it is especially necessary for occupations that deal with life, such as nurses, because it is essential to be able to provide nursing and treatment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refor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we all need to improve our English skills so that we can use artificial

intelligence more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정리하자면, 첫째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오역을 방지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협업과 소통을 위해 영어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고, 둘째로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같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에는 특히 더욱 필수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간호 및 치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효과적이고 주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